

## 옥구초 1학년 1반 학부모님께

안녕하세요? 2022학년도 1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된 교사 조민정입니다.

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네요... 쑥쑥 커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낯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.. 만감이 교차하실 듯합니다.

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다른 의무교육 기관이기에 1학년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날지, 짝꿍은 누가 될지, 반 친구들은 어떨지, 1학년 학교생활과 수업은 잘 따라갈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과 걱정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.

우리 8살 인생들이 어떤 마음인지, 어떤 발달 특징을 나타내는지, 무엇이 필요한지 저 또한 교사로서 그리고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심히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아직도 아기 같은데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시켜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속상하실 때가 있으시지요?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고, 또래의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아이들 곁에 든든히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되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. 그러기 위해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.

**아이들 아침을 꼭 먹여주시고 등교 시간을 지켜주세요.** 아이들의 하루 첫 시작이 잘 되어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전 날 준비물과 과제가 있다면 미리 챙기도록 해주시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여 아침시간이 편안히 흘러가게 해 주세요.

**알림장과 L자 파일(우체통)을 확인해 주세요.** 과제와 준비물은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안내하겠습니다. 다만 정해진 내용은 확인해주시고 준비시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“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.” 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.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몫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관심,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이 뒷받침되어야겠지요. 우리 아이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해주시고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큰 나무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, 또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,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

담임교사 조민정 드림  
학교전화: 063-464-9596  
담임교사: 010-9147-1952